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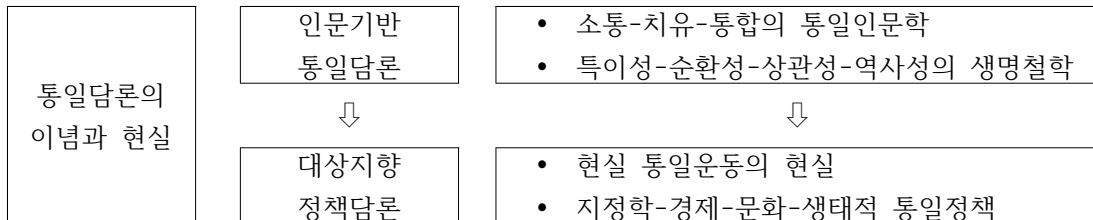
## 통일한반도와 생명철학 : 생명철학기반 통일담론과 그 실천모형

최종덕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 소장)

### 1. 생명철학 기반 통일담론

통일담론은 이론의 이념적 측면과 현실정책을 위한 실천적 측면을 포함한다. 실천적 측면은 이미 다른 정치사회학적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통일이나 문화적 통일 혹은 경제적 통일 등에 관한 논의들이다. 한편 통일담론의 인간학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인문학 기반 통일담론의 인간학적 성찰은 지정학적 다면성과 질곡의 민족사를 갖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인간학적 통일담론을 다룬 연구사업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말하는 인문학 기반 통일의 기조는 “인간다움을 찾는 사람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그런 인문학적 모형을 <통일인문학>이라고 부른다.<sup>1)</sup> (통일연 2015b)

1)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통일인문학을 ‘소통’과 ‘치유’ 그리고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하고 있다.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은 아래처럼 요약된다.

첫째 통일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기반을 둔 통일 패러다임이다.

둘째 통일인문학은 남북한 주민 모두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데 있다.

셋째 통일인문학은 자유, 평등, 인권, 민주, 생태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넷째 통일인문학은 분단구조의 문제를 극복하여 남북사회를 조화롭게 변하게 하려는 과정이다.

결국 통일인문학은 이질적 남북 사이에 소통을 통하여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통합을 지향한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b,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

인문학 기반 통일담론은 더 상세히 더 구체적으로 분화 발전되어야 한다. 그 발전모형의 하나로 ‘생명철학 기반 통일담론’이 제시된다. 한반도 통일은 생명철학의 나침반에 맞춰질 때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적용가능성이 창출된다는 논거를 다룬다는 뜻이다. 그 논거 중 하나로서 생명철학기반 통일담론이란 특이성-순환성-상관성-역사성이라는 생명철학 이념을 반영한 통일담론의 이론적 모델을 만들하고자 한다. 생명철학 기반 이념모델의 목표는 고통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평화의 미래를 정착하는 데 있다. 나아가 실질적이고 효용적인 통일정책과 통일 후 안정화를 실천하고자 한다.

## 2. 생명철학 : “생명”의 철학적 의미

생명의 생물학적 의미는 대사metabolism, 증식reproduction, 반응responce, 변화evolution에 있다면, 생명의 철학적 의미는 특이성, 순환성, 상관성, 역사성에 있다.(최종덕 2016)

생명개체는 자신의 개체를 보전하고 짝짓기를 통해 자신의 종을 존속하려는 행위 자체가 바로 생명의 의미이다. 개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진대사 작용과 개체의 반응 작용을 수반하며 종의 존속은 증식과 진화에 의해 보장된다. 그래서 대사작용과 증식, 반응작용과 진화는 생명을 정의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대사, 증식, 반응, 진화라는 생명의 생물학적 특징에 철학적 옷을 입혀 보이면, 특이성, 순환성, 상관성,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학적 용어로서의 대사, 증식, 반응, 진화 개념이 철학적 의미로서의 특이성, 순환성, 상관성, 역사성 개념에 직접적으로 일대일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생명의 생물학적 특징		생명의 철학적 의미	
개체보전성 특징	대사	특이성	개체마다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특이성이다.
	반응	상관성	항상 운동하며 에너지를 교환한다.
종존속성 특징	증식	순환성	개체독자성이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이다. <small>@philonatu</small>
	진화	역사성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현존재는 30억년 생명사의 누적된 산물이다.

## 3. 생명철학에서 통일담론으로

생명철학이 통일담론의 기반으로 되기 위하여 특이성, 상관성, 순환성, 역사성이라는 생명철학의 4가지 기초개념들이 사회과학적 지지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생명철학 개념이 사회과학 개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적용가능성과 그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는 물질적 이해관계 혹은 기계적 산술관계로 풀어질 수 없는 유기체적 상황에 놓여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문제는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 통시성과 관계적 주변성을 안고 있다.

셋째 통일담론의 존재론적 측면들, 지정학-경제-문화-생태적 통일담론 모두 현재와 미래에 살아있는 남북한 주민의 생명존재와 생태학적 생명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통일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생명존재이기 때문에 인식론적 태도도 생명철학적 기반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생명철학의 특이성, 상관성, 순환성, 역사성이라는 4 가지 기초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회과학적 통일기초 개념을 잉태한다. (i) 생명철학의 특이성 개념은 통일담론의 다양성과 평등성 개념을 기반하며, (ii) 생명철학의 상관성 개념은 통일담론의 공생성과 존중성 조건을 기반하며, (iii) 생명철학의 순환성 개념은 통일담론의 교환성과 연속성(자주성) 조건을 토대해주며, (iv) 생명철학의 역사성 개념은 통일담론의 통합성과 세계성을 보장해 준다.

#### 4. 통일담론의 실천적 조건들

##### 4.1 다양성과 평등성: 특이성의 실천적 조건

생명의 특이성이란 유기체 모든 개체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거꾸로 말해서 생명종마다의 차이 혹은 개체마다의 차이는 우열의 조건이 아니라 개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이성이다. 이러한 생명의 생물학적 특이성은 철학적으로 볼 때 다양과 평등으로 설명된다.

<다양성> 다양함이란 생명개체의 표현성이 그 어느 것이라도 같을 수가 없으며, 서로 다른 차이가 차별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근거가 된다는 뜻을 함의한다. 생명철학적 특이성이란 통일담론의 중요한 실천적 조건인 다양성을 보장하는 개체마다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획일적인 양태를 지향하는 사회는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양성이 부정되는 획일적 사회는 구성원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획일화된 상황은 곧 창조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아진다.

<평등성> 생명체는 자기변화의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된 방향을 갖지 않기 진화론적 특징 때문에 모든 생명종은 서로 간의 복잡성의 차이를 보일지언정 진화결과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평등함의 의미이다. 모든 개체가 특이하다는 것은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조화를 향한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는 평등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버섯이나 해마나 악어나 개구리나 까마귀나 원숭이나 인간이나 모든 생명종들은 각기 진화의 최종 소산물이며 서로의 특이성은 다르지만 서로를 같은 지표로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남북간 소통의 평등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만의 기준으로 혹은 북한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비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2 (상리) 공생성과 존중성 : 상관성의 실천적 조건

생명의 상관성은 생명개체는 고립될 수 없으며 공진화와 공생의 관계 그리고 생태적 관계를 통하여 타자의 생명개체와 상호 의존적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개체의 독자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생물학적 특징인 대사, 증식, 반응, 변화는 주로 생명개체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생성> 생명계에서 공생은 상리공생, 편리공생, 편해공생, 기생공생의 관계로 나뉜다.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은 쌍방의 생물종이 상대방으로부터 서로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편리공생(片利共生, Commensalism)은 한쪽만이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편해공생(片害共生, Amensalism)은 한쪽은 이익이나 손해가 없지만 다른 쪽만이 피해를 입는 경우이고, 기생(寄生, Parasitism)은 상대방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이다. 편해공생이나 편리공생의 관계를 통한 통일전력이나 정책 혹은 통일운동은 장기적 갈등비용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통일전후에 걸친 통일비용도 막대하여 남북한 양자가 감당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상리공생이 배제된 통일은 장기적으로(후손에 이르기까지) 성공할 수 없다.

<존중성>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생명철학의 기초이다.

#### 4.3 교환성과 자주성(연속성) : 순환성의 실천적 조건

생명의 순환성은 생명은 정지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환성> 개체의 보전은 신진대사를 통해 가능하듯이 통일은 사회적 신진대사를 요청한다. 통일담론에서 사회적 신진대사의 의미는 각자에게 부족하거나 넘치는 (물적 인적) 자원을 상대방과 서로 교환하여 한반도 자생력을 양생한다.

<자주성> 남한의 정부 혹은 북한의 정부 어떤 정부가 착륙해도 통일운동은 정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연속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속성 시스템을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자주성'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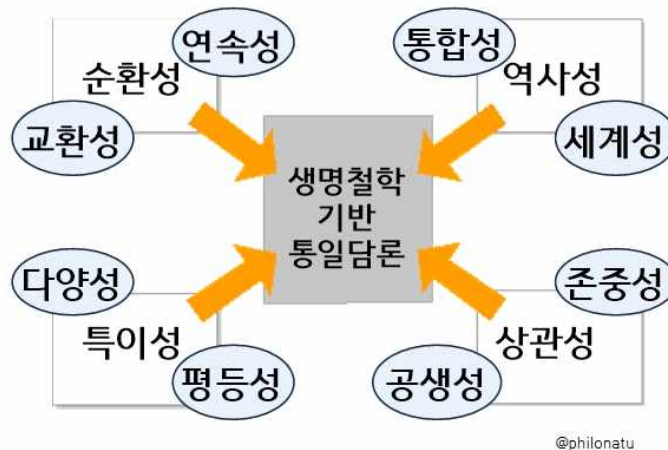
#### 4.4 통합성과 세계성 : 생명의 역사성에 따른 실천적 조건

생명의 역사성은 생명종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현존 유기체는 30억년 생명사의 누적된 소산물임을 말한다.(최종덕 2014)

<통합성> 남북간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통일논의에서 기능주의 입장에서만으로도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하나의 중고 손가방이 있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이 손가방을 평가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손가방의 수납구조와 크기 그리고 표면질감이나 색깔, 가죽재질의 튼튼한 정도와 미학적 디자인 등의 기능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된다. 이런 기능적 평가는 그 중고 손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나에게 전해졌는지 등의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하게 생산된 손가방이라도 그 물건이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기억되거나 특별한 기념품으로 받은 선물이라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적 측면으로 본 생명철학의 키워드를 나는 여기서 통합성이라고 부른다. 남북한 통일요소 모두는 하나의 예외 없이 통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왜 서로 분단되었는지, 우리가 왜 독재정권의 고통에서 서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동일 혈통 동일언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증오하게 되었는지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만 파악되지 않으며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시간적 통합성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세계성>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만의 지정학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제적인 정치이데올로기의 갈등은 분단 한반도에서 임상실험되고 있다. 영공과 영해 통과제재 및 광물에서 생활사치품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경제제재조치의 가장 범례적인 형태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실현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남한의 핵발전 개발계획이 동시에 하나의 세계 공간에서 이뤄지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반도뿐이다. 군비경쟁식 권력경쟁이 일어나는 곳도 한반도가 다른 어느 것에 지지 않는다. 결국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만의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 국제적인 정치이데올로기의 갈등, (ii) 세계경제를 서로 쪼먹는 경제제재형 위기경제, (iii) 핵실험과 핵소유를 정치권력으로 남용하는 위기정치, (iv) 인간성을 해치는 권력경쟁의 반인간성과 생태파괴적인 반생명성, 이 모두 분단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philonatu

## 5. 생명철학 기반 통일정책이 가져다주는 실질적 효과

- 1) 특이성-순환성-상관성-역사성의 생명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생명철학기반 통일정책과 수행만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지속가능하며, 가장 갈등이 적으며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통일에 따를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절과 불평등, 획일성과 편향성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설립된 독일신탁청(THA: Treuhandanstalt)은 동독지역의 부동산과 국영기업의 소유권 이전을 담당할 장관급 부서

였다.<sup>2)</sup> 독일신탁청의 공도 많았지만 일방통일에 따른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과오의 부작용을 많이 낳았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서 독일의 과오를 거울삼아 일방적 통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생명철학 기반 통일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들어 사유화와 민영화 대신에 합의적 국영화와 사회적 경영기구라는 연속성의 생명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sup>3)</sup>

- 3) 통일은 경제적 대박이나 사회적 도피처라는 일방적 편향성과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4) 의식에 남겨진 분단의 트라우마는 단순 통일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철학적 통일의식에 이해서 비로소 치료될 수 있다. 즉 통일 자체가 트라우마 치료를 주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5)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한 협력시스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생명-생태기반 과학기술 연구협력단지 조성은 통일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실천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남북공동 환경기술공업단지, 남북공동 생태적합성 품종개발 기술단지, 남북중몽골 공동 사막화방지 연구단지, 남북중러 공동 농산물면세유통단지, 한중 공업과학기술대학 설립 등의 생태중심적 기술연구프로젝트 제안은 그 자체의 사업적 평가와 더불어 통일속도와 비용을 합리화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한다.

## 6. 생명철학기반 통일담론의 실천모형 사례 : 통일한반도 그린벨트 프로젝트(CPLK Project)

가칭 “한반도 평화상생 생명선” 프로젝트 (Coexistent Peace Lifeline of Korea)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기존의 휴전선 지대(238km), 백두대간(1625km), 한반도와 중국/러시아 국경선 지대(1672km)<sup>4)</sup>를 그린벨트지역으로 조성하는 동아시아 중장기 협력사업 형태로 구상된다. 지정학적으로 그린벨트 개념은 생명철학적 “생명선”Life-Line개념 위에서 그 실천가능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으로 백두대간 그린벨트, 휴전선 그린벨트, 국경선 그린벨트로 구분되며, 생명철학적으로는 통합의 생명선, 치유의 생명선, 소통의 생명선으로 구성된다.

### 통합의 생명선 :

- 2) 독일신탁청(THA: Treuhandanstalt)은 1990년 7월 설립되고 1994년 12월 폐지되었다. 업무대상: 구 동독 내 공영농장, 공영기업, 국가소유 토지 위에 선 개인소유 건축물 외 부동산 중심 국영재산이었다. 신탁업무 원칙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신속한 사유화Privatization 둘째 확고한 경영정상화 셋째 신중한 청산 원칙이었다.
- 3) 사유화는 전적인 소유이전을 의미하며, 민영화는 국영화 개념에 대비되는 것으로 국가소유를 유지하되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 4) 출처: "Land boundaries", CIA World Factbook 2016

- (1) 백두대간 그린벨트 지역이며,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의 백두대간 남쪽 690km 구간과 향로봉에서 백두산까지의 백두대간 북쪽 935km 구간으로 나뉜다.
- (2) 한반도 깃대종 생태계로 조성한다.
- (3) 맨 북쪽의 시베리아 호랑이와 맨 남쪽(고성)의 공룡발자국화석에 이르는 시공간의 통합적 상징을 담아내는 국제적 생태보전지역으로 조성한다.

**치유의 생명선 :**

- (1) 휴전선 그린벨트로서 248km 구간이다.
- (2)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통일의 미래를 구상하는 한민족의 미래형 생태적 니치niche를 구축한다.

**소통의 생명선 :**

- (1) 국경선 그린벨트 : 백두산 서쪽 국경선 구간: 백두산에서 신의주까지 국경선 서쪽 900km 구간과 백두산 동쪽 국경선 구간: 백두산에서 신의주까지 국경선 동쪽 600km 구간으로 나뉜다.
- (2) 중국내륙 사막화방지 연구단지, 만주시베리아 침엽수생태계 연구단지, 범지구적 탄소감축 과학단지 등의 기후변화 과학기술연구단지를 국제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하며, 국제자연보전 지역을 만든다.



<참조1> 독일의 그린벨트



죽음의 상징이던 동·서독 ‘철의 장막’을 건너낸 자리에 통일 이후 독일 남북을 잇는 1,393km의 녹색 띠(폭 50~200m)로, 철조망이 둘러쳐진 경계지역에 서식해 온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거대한 생태축이다.

1989년 BUND의 제안으로 프로젝트 시작했다. 분트의 노력은 결국 연방정부를 이끌어 내었으며, 독일 자연보전청 BfN(Bundesamt für Naturschutz) 주관으로 현재에도 지속 중이다. 구 동서독 경계선을 따라 1400km로 이어진 그린벨트는 그 폭이 50-200m 규모에 해당하는 생태축이다. 그 외형적 목표는 종의 보전과 확산 등의 생태보전에 있지만 상징적 의미는 동서독 통일 이후의 소통과 상생에 있다.(Leitzbach et al. 2016)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참조2> 유럽 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





유럽그린벨트는 북극해 바렌츠 해(Barents Sea)에서 남동유럽 흑해까지 이르기까지 22개국이 참여하는 친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띠이다. 목적은 생태보전과 평화협력에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독일 자연보전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Riecken,2007)

1989년 독일 통일 한 달 이후 환경시민단체 중심으로 독일 통일과 소련붕괴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유럽그린벨트회의에서 발의되었으며, 다음 해 2004년 국제자연보전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IUCN) 중심으로 유럽 그린벨트 조성에 대한 결의를 합의했다. 2010년에는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가 참가하여 22개국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다. 이는 생태적 벨트 조성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통일 이후 유럽국가의 지정학적 네트워크(Transboundary Cooperation)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Riecken et al. 2007, 1부)

####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통일인문학연구총서 003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1부), 선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a, 『민족공통성과 통일의 길』, 경진출판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b,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 알렙
- 녹색사회연구소 2007, 『한국환경보고서 2007』
- 최종덕 2014, 『생물철학』, 생각의 힘
- 최종덕 2016, 『비판적 생명철학』, 당대
- Bund Naturschutz in Bayern e.V. 2003, Bestandsaufnahme Grünes Band. Unveröffentlichter Abschlussbericht zum E+E-Vorhaben. Erstellung: Büro für ökologische Studien & Projektbüro Grünes Band. Bayreuth und Nürnberg.(<https://www.bund-naturschutz.de/>)
- Leitzbach, Von D., Schlumprecht, H., und Geidezis, L.(2016), Was(s)erleben im Biotopverbund Grünes Band, Natur und landschaft, Heft 12
- Riecken, U., K. Ullrich, A. Lang 2007, A vision for the Green Belt in Europe, in: Terry, A., K. Ullrich and U. Riecken (Eds.): The Green Belt of Europe. From Vision to Reality,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 CIA World Factbook 2016